

## 탈식민주의의 저항전략과 페미니즘

고정갑희\*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탈식민주의의 저항 전략 중 문화와 담론 영역의 저항 전략을 살피고 그것이 갖는 한계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탈식민주의 저항 전략으로 흉내내기, 반언술행위, 번역, 언어거부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그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살핀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 전략들이 페미니즘과 생산적 위기를 형성하는지 물으면서 현재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대안적 전략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전략이 페미니즘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은 현재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물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흉내내기, 반언술행위, 번역, 언어거부에 대해 문화에 안주하며 위안을 받는 행위로 비판하는 시각과 정치경제적인 관점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는 시각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던질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남성중심의 탈식민주의와는 달리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젠더-인종-계급의 중층적인 상황에 관심을 둔다. 가야트리 스피박이나 찬드라 모헨티는 마르크스주의의 혹은 ‘반자본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탈식민주의에 페미니즘의 개입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제3세계 출신으로 제1세계에서 활동하는 지식인들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다시 탈식민주의의 저항 전략과 페미니즘이 생산적 위기를 조성하는지 묻는다. 그리고 이 물음은 현재 페미니즘의 새로운 방향성 설정과도 관계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방향성을 묻기 위한 전단계 작업으로 탈식민주의 저항 전략과 그에 대한 비판을 다룬다.

**주제어:** 탈식민주의, 저항 전략, 반언술행위, 번역, 페미니즘

\* 한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글로벌페미니즘학교 집행위원장. tanhee@hs.ac.kr  
『젠더와 문화』 제4권 1호(2011) pp. 167-203

© 201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1. 시작하며

80년대 후반부터 이론의 지형에 떠오르기 시작한 탈식민주의는 흔히 사이드(Said)의 『오리엔탈리즘』과 『문화와 제국주의』를 그 출발로 잡는다. 사이드와 함께 바바(Bhabha)의 이론이 중심 담론이 되며, 파농(Fanon)이 재해석된다. 그리고 스피박(Spivak)을 위시하여 이론의 지형을 새롭게 만드는 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이 배경으로 삼는 이론가들은 다양하다. 데리다, 라캉 등 해체론과 정신분석, 그리고 푸코의 권력과 지식의 문제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 배경으로 깔린다.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도 한몫을 한다. 그리고 문학 텍스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문학 텍스트로는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영국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호주, 캐나다, 미국 내의 흑인, 제3세계 작가들의 작품들이 포함된다. 문학뿐만 아니라 식민지와 제국의 문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탈식민주의에 대해서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탈식민주의 비평’이 “반혁명에 부여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Dirlik, 2001). 탈식민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탈식민주의 담론이 문화나 언어 그리고 재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경제학적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간과한다는 점과 연결된다. 제국주의의 문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재의 전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현실적 실천이나 행동을 간과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딜릭(Dirlik)은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로부터 후퇴한 급진주의자들이 안도감을 얻는 자기 위안의 과정이 탈식민주의라고 본다. 탈식민주의를 사회정치적 급진주의를 문화로 환치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의 억압과 불평등의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려 과거의 유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비판한다(Dilrik, 1998: 126). 다시 말해 그에 의하면 탈식민적 주장은 “자본주의에 ‘토대론적’ 위치를 부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현 자본주의하에서 새로운 권력형태가 생성되고 억압과 불평등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은폐한다는 것이다(딜릭, 1998: 126). 따라서 탈식민주의는 “기존의 전지구적 질서를 공고화하는 반혁명”에 부여하는 혐의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장세룡, 2011, 재인용). 그리고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하는 현재의 탈식민주의 논의가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동반해야 한다는 시각 또한 기존 탈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김은중은 “계몽주의 근대성은 식민성을 토대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근대 세계체제는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였다”고 주장한다. 근대성과 식민성의 상관관계를 근대/식민 세계체제로 보지 않은 것은 유럽중심적 내부사유의 문제라고 본다(김은중, 2010: 121).

이러한 비판의 맥락에서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다. 제국주의의 정치적 지배가 끝났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그 지배가 지속된다고 보는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이 관계를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글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보기 전 단계로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보려고 한다. 탈식민주의는 페미니즘에 무엇을,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다시 말해 이 글은 탈식민주의가 페미니즘에 대안적인 것을 제공하였으며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지금 새삼스럽게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탈식민주의라는 우산 안에서는 여성의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중심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페미니즘이 젠더화된 주체를 그 중심에 둔다면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제국주의적 주체의 문제를 그 중심에 두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이 될 수도 있다. 이 둘은 생산적 위기를 조성하며 서로에게 비판과 확장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생산적 위기란 비판과 확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탈식민주의가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확실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이론이라면 이 시점에서 탈식민주의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지구적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의 지점으로 페미니즘을 놓는다면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는 단순히 생산적 위기를 조성하고 서로에게 보완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살피는 일은 이와 같이 탈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전제로 한다. 비판적 성찰을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생산적 위기를 위해서 이 글은 탈식민주의의 저항 전략을 살피고 페미니즘의 개입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탈식민주의의 특성을 살핀다는 것은 광범위하니까 주로 탈식민주의의 문화적 저항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근까지의 탈식민주의 논의를 개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탈식민주의의 저항 전략 또한 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음을 밝혀야 하겠다. 이 글은 탈식민주의가 페미니즘과 생산적 위기를 조성하는지 살피기 위한 전 단계로 탈식민주의가 갖는 정치성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이어지는 작업으로서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의 대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될 것이다.

## 2. 탈식민주의의 저항 전략

탈식민주의는 특정 민족이나 인종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경제적으로 독립한 듯하지만 여전히 제국주의는 문화적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거나, 새로운 식민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는 관점들로 이루어진다. 탈식민주의를 의미하는 영어 표기인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에서 포스트(post)를 ‘후’로 번역할 것인지 ‘탈’로 번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아직은 제국/식민주의의 지배를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탈’식민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는 탈식민주의 이론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탈식민주의라고 할 때, 이 용어는 제국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탈’을 사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적으로 식민의 상태에 있거나 경제적인 신식민의 상태에 있는 현재를 탈피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탈’식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탈식민주의 이론과 실천이 ‘후’식민 혹은 ‘신’식민의 상태를 벗어나려는 의지와 벗어날 가능성을 제시하는지의 문제를 살피는 일이 중요해진다.

이 글은 일단 탈식민주의가 탈식민화를 목표로 한다고 보되, “post-colonialism”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보는 포스트(post)가 의미하는 바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후/탈식민주의가 제시하는 저항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탈’식민이 현재와 과거의 식민주의의 잔재와 유산을 안고 있는 ‘후’식민 상태와 ‘신’식민의 상태를 탈피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지배의 방식과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대안이 가능하다면 대안 전략은

무엇인지를 페미니즘과 연결하여 살피는 작업도 요구된다.

탈식민주의 이론이 저항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를 가능하게 한 제국, 혹은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지배 전략을 분석하는 일을 한다고 전제할 수 있다. 현재 탈식민주의 논의의 중심에 있는 주요 내용들은 정치·경제적 실천보다 이론적, 담론적, 문화적 실천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제국은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수하고 지배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현재도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탈식민주의 논의들은 제국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서사구조와 내용을 분석한다. 이 분석의 출발로 파농의 『검은피부, 하얀가면』,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문화와 제국주의』, 바바의 『국가, 서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서구중심성과 유럽중심성 그리고 백인중심성에 기반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신식민주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저항 전략으로 제국의 담론을 되받아치는 행위로서 글쓰기 혹은 언술행위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그 글쓰기의 행위로서 반언술행위 중 알레고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문화의 혼종성이 열어주는 가능성, 흉내내기와 틈새전략으로 균열적, 해체적 읽기, 협상과 번역의 중요성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혼합되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 정신분석, 그리고 문화론 등이 탈식민주의의 저항 전략에 동원된다. 데리다의 해체론, 푸코의 지식과 권력, 라캉의 정신분석, 그람시의 헤게모니 등이 동원된다. 바바에게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정신분석이, 스피박에게는 해체론이, 다시 되살려지고 있는 파농에게는 헤겔과 프로이트가, 사이드에게는 푸코와 그람시가 바탕에 깔려 있다. 문화의 혼종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의 혼종이 이루어지는 장이 탈식민주의의 장이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이론들이 혼합되어 이

루어지는 다양한 탈식민적 저항 전략 중 ‘반언술행위’, ‘흉내내기’, ‘번역’ 그리고 ‘제국의 언어거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반언술행위, 흉내내기, 번역 그리고 제국의 언어거부는 기본적으로 언술 행위(담론)에 초점을 맞춘 저항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저항 전략에 선행되는 것은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사이드, 바바, 스피박, 파농, 잔모하미드(JanMohamed), 아마드(Ahmad), 아체베(Achebe), 씨옹오(Thiong'o), 패리(Parry))의 지배 전략에 대한 분석이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 『문화와 제국주의』는 서양의 언술 행위와 문학, 문화적 텍스트를 통한 제국주의의 재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현재 영토상의 지배로서의 식민주의/제국주의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제국주의 논의와 식민주의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문화적으로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인식적 폭력과 정신의 영토화를 문제 삼는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언술행위와 문화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지배 전략에 대한 분석을 한 후,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중심을 해체하고 주변부의 침묵당한 목소리를 복원하며, 텍스트를 꼼꼼히 읽고 되받아 치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 작업은 제국의 서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쓰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협상, 간섭, 번역, 흉내내기 등의 정치학이 동원된다.

흉내내기는 바바 이론의 중심 개념으로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어다. 『문화의 자리 *Location of Culture*』에 실린 “흉내내기와 인간에 관하여”, (“Of Mimicry and Man: The Ambivalence of Colonial Discourse”)란 제목의 글에서 바바는 라캉의 흉내내기를 차용한다. “흉내내기란 그 어떤 것의 뒤에 있는 그 자체라 불릴 수 있는 것과 구별되는 어떤 것을 드러낸다. 흉내내기의 효과는 감춤

(camouflage)이다. …그것은 배경과 조화를 이루는 문제가 아니고 얼룩덜룩해진 배경에 대항하는 문제다. 얼룩덜룩해지는 문제다. 정확히 말해 인간들의 전쟁에서 사용된 위장술(technique of camouflage)과 같은 것이다”(Bhabha, 1994: 99 재인용). 흉내내기는 제국의 식민정책이 피식민지인들로 하여금 제국을 닮도록 하는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똑같아지는 위험을 막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바바에 의하면 이러한 동질화와 차이의 지배 전략에서 파생되는 흉내내기는 피지배자가 지배자와 똑같아지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지배자의 흉내내기는 패러디나 조롱에 가까워진다. 제국의 식민 주체들을 흉내낸다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척하는 것이며 오히려 제국의 권위와 지배를 교란시킨다고 바바는 주장한다. 갈라진 혀로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복종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이 된다. 따라서 흉내내기는 아이러니한 절충을 의미하게 된다. 그 예로 바바는 방글라데시에 간 선교사의 글을 통해 그곳의 거주민들이 휴지로 혹은 시장에서 물건을 싸는 종이로 사용하기 위해 성경책을 받으려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Bhabha, 1994: 92).

바바의 양가성 이론은 흉내내기와 연결된다. 양가성이란 정신분석에서 하나를 원하고 그것의 반대를 원하는 것 사이를 끊임없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 다시 말해 끌림과 혐오가 동시에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신분석의 양가성이 바바에 의해 식민담론이론에 차용되면,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자 사이는 단순히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고 끌림과 혐오가 복잡하게 뒤섞이는 양가적 관계가 된다. 피식민 주체는 식민 주체에 완전히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양가적이고, 식민 주체 또한 착취적이면서 베푸는 것으로 재현되기 때문에 양가적이다. 바바에 의하면 양가성은 따라서 식민지배

자에게는 식민담론이 갖는 부정적 측면이 된다. 식민주의 담론을 통해 지배자는 순응적인 주체, 즉 지배자를 흉내내는 주체를 생산하기를 원하지만 실은 끌림과 밀어냄을 동시에 하는 양가적 주체들을 생산하게 된다.

바바의 양가성은 바로 일방적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사이드의 해법에 대한 수정작업으로 출발한다. 바바는 후기구조주의적 입장에 서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론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한다. 바바는 식민주의 담론에서의 차이와 차별에 대해 말하면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론이 지니고 있는 창의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지식으로서 오리엔탈리즘 담론의 목적과 그 안에서 구성된 주체를 분열시키는 두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타자성과 양가성(Bhabha, 1994: 199)”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사회, 집단, 문화 안에서 작용하는 힘의 역학은 일방적이 아닌 양가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국 담론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된다. 중심에 의해 의심스러우며, 분류될 수 없으며, 경계선에 위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주변부가 중심을 불확정적이고 비결정적인 양가성을 지닌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제국의 중심성을 교란시킨다. 바바의 양가성은 잔모하미드의 융합주의와 같은 두 체계의 상호공존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바바는 그의 혼종성(hybridity)을 이끌어낸다. 양가성이 권력의 위치에서 그 권위를 탈중심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위도 다른 문화에 감염되는 그런 식민주의 맥락에 놓이면 잡종화된다. 이 혼종성은 식민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접촉면 내에서 새로운 문화적 형태가 형성됨을 가리킨다. 원래 혼종성은 식물학에서 두 종을 접붙여 새로운 제3의 잡종(hybrid species)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혼종성은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언어적, 문화적, 정치적 인종적 섞임을 의미한다(Ashcroft, 1998: 118). 그에 의하면 지배자의 것이든 피지배자의 것이든 모든 형태의 주체와 정체, 그리고 담론은 차이와 분열(division)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체의 정체성에는 이미 타자가 섞여 있고, 따라서 모든 형태의 정체성은 이미 혼성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혼성성 개념은 독립실체로서의 국가나 민족을 부정한다. 대표적 논문 중 하나인 “디세미네이션”(“DissemiNation”)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이 혼성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며,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독립실체 개념으로서의 국가 혹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탈식민주의적 이론에 의하여 해체되어야 할 요소임을 밝힌다. 여기서 민족, 민족문화의 건설을 식민성 극복의 전제로 삼는 파농에 대한 바바의 해석이 나온다. 그에게 파농은 식민상황의 이원구조를 분석한 이론가가 아니라 단일 정체성이 어떻게 내적인 분열을 겪는가란 문제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한 혼성이론가로 환원된다.

바바의 흉내내기에 이어 슬레먼(Slemon)이 제안하는 반언술행위(counter-discourse)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지배 서사를 통한 문화 재생산을 막기 위해 탈식민주의가 제기하는 방식의 하나다. 슬레먼은 “제국의 기념비들—탈식민적 글쓰기의 알레고리와 반언술행위”라는 논문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지배에서 담론이 갖는 헤게모니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으로 반언술행위를 제안한다. 슬레먼은 탈식민 문화의 반언술행위가 제국주의적 동질화에 도전하고, 그것을 전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슬레먼, 1992: 63). 그리고 반언술행위의 중심 형식으로 알레고리에 관심을

갖는다. 그에 의하면 알레고리는 제국과 피식민 주체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제국의 알레고리에 저항하는 알레고리를 상징함으로써 알레고리가 반언설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슬레먼, 1992: 65). 알레고리에 대한 논의는 일찍이 제임슨(Jameson)이 “다국적 자본주의 시대의 제3세계 문학”에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제3세계의 알레고리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면서 민족주의적 알레고리와 제1, 제3세계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의 차이를 연결한다(슬레먼, 1992: 63-65). 제임슨에 의하면 공/사의 분리가 진전되지 않은 중국 같은 데서 노신의 글쓰기를 통해보면 사적인 것은 바로 사회적 집단적 알레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 알레고리를 둘러싼 논의에서 아마드는 제임슨의 논의를 비판한다. 아마드는 제임슨이 자본주의의 제1세계와 사회주의의 제2세계는 ‘생산 체제’에 의거하여 정의하고 있는 반면, 제3세계는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등 순전히 “외부에서 삽입된 현상의 ‘경험’에 의거하여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Ashcroft, 1995: 78, 재인용). 아마드는 우리는 세 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Ashcroft, 1995: 80). 제1, 제2, 제3세계로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이며, 자본주의 체제도 “이원론적 대립이 아니라 차이가 있지만 깊숙이 겹쳐져 있는 모순적 통합의 용어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Ashcroft, 1995: 80).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차이가 타자성이라는 개념으로 절대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위 ‘제3세계’ 내부의 사회적 구성이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중층적이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타자’라는 개념이 결국 해체되어 버릴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Ashcroft, 1995: 80).

알레고리는 잔모하미드에게 오면 다른 각도에서 제시된다. 잔모하미

드는 “이원구조적 알레고리의 경제학”(“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이라는 논문에서 식민지배자의 문학 텍스트와 이에 대응하는 식민지 아프리카의 문학을 분석한다(JanMohamed, 1985). 잔모하미드의 이원구조적 알레고리론이 보여주는 식민문화론은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절대적 대칭관계를 설정한 과농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대립관계가 어떻게 변증법적 새 관계로 변모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문화적 융합주의(cultural syncretism)로 발전한다. 그리고 그의 식민문화론은 이러한 문화적, 문학적 융합론의 가능성을 식민지배자층의 작가에게서가 아니라 제3세계 작가에게서 찾는다(JanMohamed, 1985).

번역은 바바가 내놓은 용어다. 바바는 재현의 미결정성에 탈식민주의가 관심을 갖고 개입할 때 정치적 저항이 가능해 진다고 본다. 그는 번역을 ‘불연속적 다시쓰기(disjunctive rewriting)’ (Bhabha, 1994: 226)라 부르고 이것은 제국적 주체의 기반인 동질적 공간과 연속적 시간을 해체한다고 주장한다. 번역은 제국에 대한 저항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주변인이 자신의 ‘고유명사’를 찾기 위한 ‘투쟁’이 된다. 주변인은 ‘탈식민주의적 번역’을 통해 서구 근대성을 재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다(Bhabha, 1994: 242).

바바는 번역이 단지 언어적 미결정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현상’임을 강조한다. 그는 자본의 전지구화 현상에 의한 ‘이산’의 문화현상에서 이질적인 문화들이 부딪치고 갈등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번역이라고 본다. 바바는 이산자들의 ‘경계성’이 ‘초국가적(transnational)’일 뿐만 아니라 ‘번역적(translational)’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탈식민주의적 번역’을 통해 식민주의의 근대화론의

재현 과정에 존재하는 서구의 지배욕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는다. 현대 탈식민 사회는 전지구적인 이산과 자본의 속도와 유연화를 통한 ‘경계의 붕괴’를 경험한다(Bhabha, 1994: 149). 현대 사회는 ‘새로운 혼성적이고 전환적인 정체성’을 창출하고 ‘동질화가 불가능한 차이들의 협상’을 가능하게 하며 ‘경계적 존재’들이 생존하는 ‘제3의 공간’을 창조한다(Bhabha, 1994: 218).

바바의 “제3의 공간의 발화들(Third Space enunciations)”은 문화적 차이의 절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Bhabha, 1994: 38). 분열된 공간은 국가간(international) 문화를 개념화하는 길을 연다. 이것은 다문화주의나 문화의 다양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문화의 혼종성의 각인(inscription)과 절합(articulation)에 기초한 것이다. 바바에게 사이를 의미하는 “inter”란 번역과 협상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 사이의 공간(in-between space)은 문화의 의미라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 바바에 의하면 이 제3의 공간(The Third Space)을 발굴함으로써 우리는 대립의 정치학을 피하고 우리 자신들의 타자들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Bhabha, 1994: 38-39). 바바는 이 제3의 공간에서 탈식민주의적 저항적 글쓰기의 한 형태인 번역이 가능해지고, 번역을 통해 ‘소수 민족 공동체가 자신의 집단적 정체성들을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Bhabha, 1994: 230-231).

슬레먼과 바바와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씨옹오의 언어 저항 전략을 생각해 보자. 이미 제국의 언어들이 피식민지의 언어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서 제국의 언어로만 표현하는 것을 배운 이들이 어떻게 문화적 독립,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아프리카 탈식민주의자들의 저항 전략은 갈라진다. 그 예로써 아체베와 씨옹오를 들 수 있다. 아체베는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씨

용오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씨용오는 영문학과 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협상을 하는 쪽은 아체베라 하겠고 거부를 함으로써 저항하는 전략을 펴는 쪽은 씨용오이다.

씨용오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서구의 식민지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생물학적인 형상이나 피부색으로 억압해 온 방식에 대해 다른 접근을 한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 내부에는 두 가지 적대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제국주의 전통과 저항 전통이다. 아프리카의 제국주의 전통은 국제 부르주아들과 아프리카 내의 꼭두각시 지배계급들이다. 이 꼭두각시 지배계급들은 형식적인 독립의 깃발을 흔들고 있지만 신식민지 부르주아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군화, 가시철선, 제복입은 성직자, 그리고 법관들, 거기다 일군의 지식인, 학자 그리고 언론인들이 이에 합세하여 신식민지 체제를 구성한다. 이에 대한 저항 세력의 주체는 노동자들(소작농, 프롤레타리아)인데 여기에 운동권 학생들, 대학내 혹은 재야의 지식인 그 밖의 진보적 중산층이 합세한다(씨용오, 1999: 20-21).

그러니까 씨용오는 제국주의의 힘은 여전히 지속되고 이 힘은 “문화폭탄이라는 초유의 무기”를 동원하여 저항의지를 공중분해 시킨다고 본다(씨용오, 1999: 22). 그에 의하면 문화폭탄의 위력은 실로 가공할 만하다. 그것은 피억압자들의 이름, 언어, 환경, 저항, 전통, 대동단결, 그리고 그들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 대한 소신조차도 일거에 박멸해 버린다. 심지어는 피억압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내세울 만한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는 쓰레기 조각장 정도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황무지 같은 과거에 등을 돌리도록 만든다. 이러한 문화폭탄이 진정한

로 회귀하는 것은 피억압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가장 거리가 먼 곳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 스스로를 동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피억압자의 삶에 대한 의지 그 자체를 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하게는 저항의 도덕적 정당성까지도 회의하게 만드는데, 씨옹오가 보기에 문화폭탄이 의도하는 효과는 절망과 비애, 그리고 집단자살 충동의 고무이다(씨옹오, 1999: 22-23 참조).

문화폭탄에 대항하기 위해서 씨옹오는 아프리카 내부와 외부의 연대를 제시한다. 아프리카 내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 전통문화와 단일한 언어다. 그는 전통문화가 문화투쟁의 무기가 된다고 보고, 각자의 언어 속에 공통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단일한 언어, 곧 투쟁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투쟁의 언어는 아프리카 언어를 계속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의 식민지에서 작금의 신식민지로 전략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유럽의 언어로 그들 자신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소위 영어권, 불어권, 혹은 포르투갈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이란 명명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언어적 예속상태를 벗어나려는 지난한 몸짓을 보여야 할 작가들마저도 제국주의자들의 이식언어를 그대로 답습하며 “아프리카 문화의 르네상스는 유럽언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공리를 편다고 비판한다. 아프리카의 민중들은 자유로운 서구의 금융자본과 그 우산 아래 있는 방대한 초국적 독점체에 대항할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씨옹오, 1999: 22-27).

앞에서 살펴본 흥내내기, 반언술행위, 번역, 그리고 제국의 언어거부가 갖는 정치학은 모두 관계의 정치학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주체가 독자성을 갖는다고기보다, 제국의 힘이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저항의 전략을 짠 것이다. 그래서 파농이 말하는 민족해방, 문화민

족주의, 혹은 생고르의 네그리뒤드는 단순한 발상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파농이 다시 복원되어도, 민족해방전선이나 민족주의 전선을 주장한 운동가로서가 아니다. 그는 경제적 절차와 무의식의 내재화라는 이중의 절차에 의해 식민화가 이루어진다고 본 이론가가 아니라 타자화된 무의식에 초점을 맞춘 정신분석학적 식민주의 이론가로 복원된다.

### 3. 탈식민주의 저항 전략을 비판적으로 보기

바바의 저항 전략에 대해 비판적 시각들은 다양하다. 아예 저항적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이미 식민담론에는 저항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식민담론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는 양가적이고, 지배자 안에 이미 타자로서 피지배자가, 피지배자 안에 지배자가 타자로서 존재한다. 이미 언제나 지배자의 담론이 피지배자의 담론에 의해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은 제3의 공간을 만들며, 그 공간은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혼종, 잡종(hybridity)의 공간이다. 흉내내기가 조롱(mockery)이나 패러디라고 하면서 그 안에 이미 차이와 저항의 요소가 내재해 있다고 말하는 바바의 입장은 동화주의자의 발상, 혹은 제국의 힘을 인정하는 발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영(Young)은 바바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영은 바바의 식민 담론에 관한 분석이 ‘저항의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성과 역사성을 결여한다고 비판한다(Young, 1990: 145). 사이드의 탈식민주의에 나타난 식민담론의 일방적인 지배에 대한 반작

용으로 바바가 지나치게 식민 담론에 내재하는 내적 불일치에 치중한 나머지 피지배자의 역사적 의식과 정치적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영에 의하면 바바의 정치적 저항은 지배자의 ‘편집증’에 기인한 것이지 피지배자의 정치적 의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 결과 피지배자는 정치적 행위의 주체가 아닌 식민담론의 지배 구조에서 발생한 자기 분열의 효과로서 ‘주체가 없는 행위자’로 전략한다(Young, 1990: 148). 영은 바바가 제시한 번역이 적극적인 정치행위가 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바의 파농 해석은 잔모하미드에 의해 지나친 자기 위주의 해석이라 비판받는다. 잔모하미드는 바바 식의 양가성이라 하는 것도 실은 이중적 대립관계에서 헤게모니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식민지배자의 지배담론의 일종이며, 그러한 양가성에 대한 주장 자체가 이미 지배담론의 영향력을 증거하는 예가 된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식민사회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확실히 함으로써 식민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 바바는 파농의 식민 지배 주체와 피식민 타자라는 이원대립구조가 갖는 심각한 투쟁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혼종성에서 도출한 바바의 문화론은 지나치게 안이하게 피지배자들이 힘을 소유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을 담고 있는 셈이다. 훔내대기가 저항이 된다는 바바의 견해에 대해 아마드, 패리, 모한티(Mohanty) 등이 비판하고 나선다. 이들은 바바가 권력관계의 불평등함과 불균형상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약소화함으로써 동화주의 정책을 은연중 지지하는 텍스트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Ashcroft et al., 1998: 118).

잔모하미드는 바바가 물질적 갈등의 오랜 역사를 무시하고 ‘식민

담론'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경제와 문화 모두를 파괴당한 피지배자가 힘을 갖는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비판한다 (JanMohamed, 1985: 60). 그리고 바바가 물질적 착취와 그에 대한 투쟁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잔모하미드는 식민담론의 정치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밝히기 위하여 식민담론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실제적인 제국주의의 실천'의 관계를 고찰해야 함을 강조한다 (JanMohamed, 1985: 61). 바바는 이런 비판에 대해 정치적 변혁을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경제구조보다는 재현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물질적인 것보다 이데올로기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셈이다. 바바는 식민주의가 주장하는 인종적 우월성이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식민담론을 통해 재현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그는 그 과정에 내재하는 식민주의의 논리적 모순을 폭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앞에서 든 비판들을 기반으로 하여 탈식민주의 저항 전략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이 가능하다. 탈식민주의의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제3의 공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제국의 서사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제국의 공간과 피식민의 공간이 함께 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인다. 흉내내기, 되받아 치기, 해체적·균열적 읽기, 반언술 행위 등은 모두 여전히 제국의 서사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한다. 탈식민화 과정에서 제국의 서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탈식민주의가 설정하는 공간이 제국과 식민 사이의 경계 지역이라면 제국의 서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탈중심화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남는다. 해체적 읽기를 통해 제국을 전복하고 신식민주의를 얼마나 교란시킬 수 있는가? 탈식민주의는 제국을 교란하고 제국에 저항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히 제국의 힘을 강조하고 그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게 만드는 교묘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담론과 지식이 갖는 권력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경제, 정치적인 제국의 상황과 연결시키지 않을 때는 단편적인 정치성만을 띠는 것이 된다.

그리고 제국의 언저리를 떠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제국의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출판과 유통, 즉 문화의 생산과 소비다. 탈식민주의 이론이나 비평의 내용은 변경의 공간, 제3의 공간이지만, 출판생산은 제1세계가 중심이며, 이론가들도 제1세계에 거주하는 제3세계인들이라는 점은 꼭 짚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3세계의 문화 원자재를 제1세계가 가공하여 생산품으로 내놓는 현실에서 보면 여전히 제1세계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문화와 비평의 생산에 관해 미첼(Mitchell)은 “포스트식민 문화, 포스트 제국주의적 비평”에서 ‘주변’ 국가에서 ‘비평’이 번성하고 ‘중심’ 국가에서 ‘비평’이 뛰어나다는 지적에 대해 문화는 더 이상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문학적 ‘원료’가 제국의 문화 산업에 의해 ‘최종 생산품’으로 바뀐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반박한다(Ashcroft, 1995, 246). 하지만 “공통의 이해관계, 동맹과 협력의 기회”를 규명해냄으로써, “포괄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미첼의 희망과 제국주의 국가였으면서도 반제국주의적 이상을 갖고 있었던 미국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미첼의 태도는 지극히 제1세계적 시각이라는 생각이 든다.

바바가 말하는 제3의 공간이 갖는 전복성은 어디까지나 비정치적일 가능성이 있다. 탈식민의 논의가 되받아치기, 은밀한 전복, 흉내내기, 협상, 번역 등이 저항의 정치성을 띠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 전략들이 갖는 정치성이 의심스러운 이유

는 상당 부분 제1세계에 있는 제3세계 지식인들에 의해 제시되었다는 점과 상관이 있다. 탈식민주의는 여전히 제국의 언저리를 돌면서 어느 정도 제3세계에 목소리를 내어주는 시늉을 하면서 오히려 제3, 제4세계의 독특한 목소리들을 차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파이어(Appiah)같은 이론가가 탈식민성의 효용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파이어에 의하면 “포스트 콜로니얼리티는 ‘주변’에서 세계 자본주의 문화상품의 교역에 관여하고 있는, 서구적 스타일에 서구적 교육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소수인 작가와 지식인 집단, 소위 ‘매관지식인 계급’의 상황이다(Appiah, 1995: 119)”.

탈식민주의가 제시하는 저항성이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수혈받고 있음은 다분히 문제점을 내포한다. 바바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근대의 연속적 시간과 공간적 구별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전제한다. 서구 근대의 연속적 역사관과 구별되는 공간의 구획화가 결국 식민주의와 연결된다고 보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러한 연속성과 차별성을 해체하고 있다고 본다. 제국의 공간적 동질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3의 공간’은 경계들이 만나는 공간이다. 이 경계적 공간은 서구의 지배가 필요로 하는 지배 주체의 공간적 동질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문화적 혼종성은 그 자체로서 이미 제국의 구별된 공간을 해체하고 있는 셈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에게 있어 피지배 주체는 저항이나 독립의 의지를 갖고 움직이지 않아도 포스트모던한 문화, 그 자체가 이미 그러한 변화의 상황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바바에게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탈식민주의의 유용한 틀이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데올로기의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수준에서 언제나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대개

실패한다”는 이글튼(Eagleton)의 경고는 귀기울일 만하다(Ashcroft et al., 1995: 244). 이 말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제학에 탈식민 시대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천적으로 경제 현상에 식민주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모순을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마쉬라(Mishra)와 하지(Hodge) ‘공모적 탈식민주의’와 ‘저항적 탈-식민주의’의 구분에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마쉬라와 하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텍스트성에 의해 오염된 탈식민주의를 ‘공모적 탈식민주의’라 부르고 이것과 대조하여 탈식민주의의 정치성을 하이픈을 통해 강조한 ‘저항적 탈-식민주의’를 주장한다(Mishra and Hodge, 1991: 407).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가 지니는 유사성 때문에 둘을 혼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지배적이며 유럽 중심적이고 신보편주의적인 제국주의 담론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탈식민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치적 모호성이 탈식민주의의 저항적 글쓰기에 장애가 된다는 브라이든(Brydon)은 탈식민적인 것과 포스트모던한 것 사이에는 강력하고 분명한 연계가 있다고 보는 허치언(Hutcheon)의 주장을 반박한다(Ashcroft et al., 1995: 248). 포스트모더니즘이 집착하는 의미의 위기가 모든 지역의 위기는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이 중심화된 주체를 비판하며 해체한다고 해서 탈식민주의의 비판과 동일하다고 믿는 것은 탈식민주의가 가질 수 있는 역사성과 정치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제휴가 ‘공모적 탈식민주의’를 낳을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탈식민이론가들의 〈서구적 틀〉 또한 문제다. 패리는

“현재의 식민담론 이론들의 문제점”이라는 글에서 잔모하미드, 스피박, 바바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서구적 틀은 신식민주의의 지배에 포섭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세 이론가들의 논의는 생산적이긴 하지만 식민상황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성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비판을 한다. 패리는 잔모하미드의 융합론, 바바의 혼성론 및 후기구조주의적 담론 우위론 등은 파농이 담보하는 투쟁력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 패리는 바바가 파농의 『검은 피부, 흰 가면』의 개정판 서문인 “파농을 기억하며”(“Remembering Fanon”)에서 행한 후기구조주의적 파농 읽기를 문제 삼는다. 패리는 또한 잔모하미드의 파농 수용은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파농이 지니는 섬세함과 유토피아적 측면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 “억압자와의 적대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식민권력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하나의 “전투적 주체”를 구성해야 함을 역설한 파농의 이론이야말로 정치적으로 효용있는 식민이론이라고 주장한다(Parry, 1987: 30).

담론과 물질적 현실을 구분할 필요성은 탈식민주의 논의의 전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여전히 제1세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담론시장과 문화의 유통구조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바바는 ‘문화의 자리’에 대해 썼지만 실제로 스피박, 바바, 사이드 등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 사이드가 『문화와 제국주의』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텍스트들은 영국의 것들이며 그들은 미국이란 땅에 거주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문화를 통한 제국주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탈식민주의 담론을 통해서 그 힘을 유지한다. 오늘의 비판이론들이 수입되고 소비되는 방식은 신식민주의의 강화와 관련된다. 문화가 자본주의의 존재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함을

탈식민주의 이론의 유통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탈식민을 향해 가려면 현재의 경계지역의 혼종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로서 제3, 제4세계의 목소리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대안의 정치학이 가능해져야 한다. 이것은 제임슨이 말하는 제3세계의 민족적 알레고리에 대한 관심이 아닌, 특정 민족이나 인종 혹은 지역의 공동체가 갖는 중층적인 목소리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서 가능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목소리가 다시 제1세계에 포섭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탈식민주의 관련서들의 출판사들을 보면 거의 미국과 영국이라는 점에서 지식 생산물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세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제3세계 국가 간의 대화가 가능해져야 하며, 토착 출판과 내부 분배 능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서적 출판산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4. 탈식민주의 저항 전략과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의 제국주의/식민주의/신식민주의에 대한 인식적 지도그리기를 통해 다시 인종/민족의 차이, 지역적 차이 등을 중심으로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할 가능성이 넓어진다. 제국주의적 주체의 문제에 접근하는 탈식민주의는 총체적 여성이라는 전제에 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탈식민주의의 관심은 인종과 민족이 다른 여성들 사이의 차이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계기를 마련한다. 그리고 탈식민주의의 저항 전략은 페미니즘이 지금까지

제기해온 문제들과 상당한 정도로 공통점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도 페미니즘의 저항 전략을 풍부히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탈식민주의의 관심은 페미니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관심이기도 하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뿐아니라 남성과의 관계에서 협상이나 반언술행위, 언어거부가 갖는 저항의 방법론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젠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페미니즘의 내용과 방법론은 젠더가 작용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은 서로 생산적 위기를 만들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다. 일단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은 공통된 관심사를 갖는다. 지배/피지배, 주체/타자의 문제들과 문화적, 인식적 지배에 관한 관심 등이 공통의 것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되는 접점의 문제가 다르다고 하겠다. 가부장제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살피는 페미니즘과 제국주의/식민주의, 그리고 그 후를 살피는 탈식민주의는 주된 관심사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은 서로 생산적인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페미니즘이 탈식민주의에 제공할 수 있는 생산적인 위기는 우선 탈식민주의가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문제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거나 못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남성주도적인 탈식민주의 이론들에서는 젠더와 제국주의/식민주의의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는다. 이론의 면에서도 실제 비평의 면에서도 그러하다. 사이드, 바바, 파농 등 남성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 외에 잔모하메드, 아마드, 아체베, 그리고 씨용오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스피박, 패리, 슬레리 등 여성이론가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논의

하겠지만 현재 이러한 탈식민을 중심에 두는 여성주의 이론가들을 제외하면 앞에서 보았던 바바를 위시한 남성이론가들은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를 핵심에 두고 있지 않다. 파농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탈식민주의 이론에서는 여성이 겪는 이중, 삼중의 식민의 경험이 역사화되지 않고 여전히 매장된다. 남성중심의 근대문명, 근대화과정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지배를 거처온 나라와 민족, 부족들의 여성은 이중적인 억압을 경험했고, 탈식민, 신식민의 상황에서 여전히 이중의 억압을 겪는다. 그리고 그 부족과 민족들 내부에서 다시 계급적, 성적 차이에 의해 삼중, 혹은 중층적으로 억압을 경험한다. 그러나 탈식민주의의 저항 전략을 통해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중층적 억압의 경험에 대해 남성이론가들, 현재 탈식민주의 담론의 중심에 있는 이론가들 대부분이 무관심하거나 침묵을 지킨다. 따라서 이 중층적 억압의 지점에 대해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의 개입이 필요하다. 식민주의, 제국주의를 단순히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도로 보는 경우 차이에 입각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제대로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고디머(Gordimer), 모리슨(Morrison) 등 여성작가들이 여성의 경험에 가까이 가는 작업을 하였고, 이들이 정전화(正典化) 과정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론에서는 다시 남성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가부장제와 제국/식민주의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젠더와 인종의 문제를 두고 우선 심급을 묻는 상황은 80년대 아프리카의 한 시인의 시에서 볼 수 있다. 젠더와 인종의 긴장관계에 대해 피터슨(Petersen)은 1981년 가을 “아프리카에서 여성들의 역

할”이라는 주제 하에 열린 학회에서 드러난 차이에 대해 말한다. 피터슨에 의하면 이 학회에서 서구 페미니스트들은 계급과 젠더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토론하고 아프리카 페미니스트들은 신식민주의에 대한 싸움(특히 문화적 측면)과 페미니스트적 해방 사이의 문제를 논했다(Petersen, 1995: 251-252).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는 페미니스트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이러한 차이와는 또 다른 차이를 아프리카 페미니스트들은 경험한다. 서구의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과 여성의 평등을 위해 싸우는 것, 그 중 무엇이 더 우선적인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프리카의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었다(Petersen, 1995: 252). 식민주의/제국주의의 경험이 없는 서구는 자신들의 사회 내의 계급과 성을 놓고 고민하고, 식민지로서의 경험을 하고 아직도 문화적 제국주의 하에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성과 제국주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보여주는 시 한편을 피터슨은 제시한다. 말라위 시인 은탈리(Mnthali)의 ‘페미니스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시는 아프리카의 탈식민주의자 남성과 아프리카 페미니스트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길지만 인용해 보기로 한다(Petersen, 1995: 252-253) .

나는 당신의 글귀의 리듬에서 빛을 보는 체할 수는 없다  
 빛나는 페이지들이 꼭 역사에 관한 저작권을 소지할 필요도 없다  
 나의 세계는 강간당하고 약탈당하고 쥐어짜졌다  
 유럽과 미국에 의하여  
 그리고 나는 유럽과 미국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세 대륙에 걸쳐 흩어져  
 존재해 왔다

그리고 지금  
 유럽과 미국의 여자들은  
 나의 땀 위에서 진탕 마시고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인 후  
 내가 세운 세상의 쿠션으로부터  
 그들의 남성동지들을 징계하고 거세하러 튀어 오른다!  
 왜 그들이 우리 사이를 헤집고 들어오도록 놔두어야만 하는가?  
 그대와 나는 함께 노예였고  
 함께 뿌리 뽑히고 굴욕을 받았다  
 강간과 린치를

관리자의 채찍과  
 노예주의 색욕  
 당신의 친구들은 ‘운동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는가?

아니, 아니, 나의 누이여,  
 나의 사랑이여,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아직 너무 많은 강도들이  
 이 대륙에 살금살금 다가 온다  
 너무 많은 해적들이  
 너무 많은 약탈자들이  
 너무나 많이  
 아직도 이 땅에 살금살금 다가 온다

아프리카가 이 땅에서건 바다 건너서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때  
 요리를 함께하고  
 내프킨을 바꾸고 할 그런 시간이  
 나에게  
 그리고 그대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피터슨에 의하면 60년대의 아프리카 글쓰기 물결은 아프리카의 과거가 얼마나 위엄 있고, 정돈되어 있으며, 복잡한, 그래서 가치가 있는 유산인지를 밝히는 작업이었고 이것은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한 싸움을 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문제는 때가 무르익어야 표면으로 부상하도록 운명지어진 것으로 무시되었고, 아프리카의 과거를 위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아프리카의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징집되었다. 피터슨에 의하면 아체베의 아프리카 전통적 이보(Ibo) 사회의 장단점도 이런 각도에서 보면 칭찬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여성은 지속적으로 매맞고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한마디도 못하게 되어 있어도, 그리고 속담이나 격언에서 항상 욕먹는 존재로 등장하며 전통적인 지혜라는 면에서 보면 여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열등한 존재처럼 행동하는 것이됨에도 불구하고(Petersen, 1995: 253), 그의 전통적 여인들은 공동체 내에서 행복하고 조화로운 구성원들이 된다. 아체베의 인물 오콘코(Okonkwo)가 아내를 때린 것 때문이 아니라 평화의 주간에 아내를 때린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을 제시하는 과정을 보면, 명백한 성적 불평등이 아체베에게는 마치 즐거움을 선사하는 주제로 비추어지는 듯하다고 피터슨은 말한다(Petersen, 1995: 254).

페미니즘은 여성들 사이의 차이들에 분명 예민해져야 하면서 동시에 연대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쉬바(Shiva)와 미즈(Mies)의 공저 『에코페미니즘』의 서문을 보면 연대의 가능성이 제시된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여성들이 서구 백인여성들과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같은 국가, 민족, 부족의 남성 또한 여성과

공감대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제3세계의 여성주의적 실천은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의 저항 전략은 이제까지 논의되는 저항 전략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이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혹은 다른 저항 전략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로 스피박과 모헨티는 계급, 인종, 성의 교차 지점에 대한 관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스피박의 '하위주체'에 대한 관심과, 모헨티의 제1세계 안의 제3세계 여성 그리고 특히 노동자들, 자유무역지대나 실리콘 벨리의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문화적 저항 전략을 뛰어 넘는 관심이다. 그리고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관심이다. 모헨티가 '반자본주의 비평', '탈식민주의', 그리고 '여성의 개입'을 연결하면서 페미니즘을 제시하는 것은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피박이 보여준 하위주체 연구모임에 대한 비판적 관심과 제1세계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 또한 탈식민주의 저항 전략에서 젠더와 계급 그리고 인종적 층차를 고려하는데 중요한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탈식민주의 저항 전략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 제시하는 젠더와 인종과 계급의 중층적 차이에 입각한 저항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또한 앞에서 든 탈식민주의 저항 전략이 갖는 한계를 부분적으로 갖는다는 점 또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지역이 갖는 저항성을 담보하려면 제국과 식민의 접점으로서 다른 공간에 대한 관심들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항 전략만이 아니라 대항, 대안전략이 필요하다. 대안은 대항을 전제로 하거나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독립을 향하는 전략이

다. 물론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페미니즘은 두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남성중심의 사회에 끼어들기와 새틀짜기다. 앞에서 살펴본 탈식민의 저항 전략들이 끼어들기와 간섭하기에 그쳤다고 보고 이제 새틀짜기가 필요한 때다. 이 새틀 만들기는 제3, 제4세계의 목소리에 기반한 페미니즘에서 출발할 수 있다. 페미니즘은 이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관계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역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새틀짜기를 위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지형도를 먼저 그려볼 필요가 있다. 가부장제와 제국/식민주의의 접점을 찾아내는 일은 제국/식민의 역사까지도 남성중심의 역사였고 역사임을 반증하는 이론과 실천의 방향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탈식민주의 논의에서 부차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접점을 살리되,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와 제국주의적 가부장제가 식민화된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일이 바로 현재 흑인, 제3세계, 제4세계 여성들의 타자화된 입지를 설명하는 일이 되고, 이러한 입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탈식민은 허구임을 말할 수밖에 없다. 흑인 페미니즘, 제3세계 페미니즘이 안고 있는 인종, 민족의 문제가 지구적으로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의 지형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지형을 그리기 전 작업으로 썼다. 현재 전지구적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제국 혹은 신제국과 제국주의, 신식민주의를 탈식민, 탈제국, 탈근대의 측면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탈식민주의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경계와 관계를 파들어가면서도 쉽게 탈식민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탈식

민과 탈제국의 관점에서 탈식민 페미니즘 혹은 확장된 페미니즘을 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탈식민과 탈제국의 관점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은 남반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국과 유럽중심주의를 벗어나는, 즉 식민성으로서의 근대성을 벗어나는 작업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탈식민이 제1세계에 있는 제3세계 지식인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본격적으로 제3, 제4세계와 남반구의 저항주체들의 행동 지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 탈식민 사상을 전달하는 스피박, 모헨티, 민하(Minhha) 같은 여성이론가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들을 넘어서는 탈제국, 탈식민, 탈근대적 페미니즘 사상을 찾아내고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은중(2010), “정치적 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 인권 정치와 대안 사회운동”,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제23권 1호, 93-131쪽.
- 딜릭, 아리프(1998),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뜨기』, 설준규·정남영 옮김, 과주: 창작과비평사. Dirlík, A.(1994), *After the Revolution Waking to Global Capitalism*, New Hampshire: Wesleyan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들: 유산과 프로젝트로서의 과거』, 황동연 옮김, 과주: 창작과비평사, Dirlík, A.(2000), *Postmodernity's Histories: the Past as Legacy and Project*, Maryland: Rowman Littlefield Publishers.
- 모헨티, 찬드라(2005), 『경계없는 페미니즘: 이론의 탈식민화와 연대를 위한 실천』, 문현아 옮김, 서울: 여이연, Mohanty, C. T.(2004), *Feminism Without Borders*,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박주식(1996), “저항의 정치학: 탈식민주의 문학이론의 위상”, 영미 문학연구회, 『안과밖』, 창간호, 309-334쪽.
- 사이드, 에드워드(1991),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서울: 교보문고. Said E.(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95), 『문화와 제국주의』, 김성곤·정정호 옮김, 서울: 도서출판창, Said, E.(1994),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샤프, 조앤(2011), 『포스트식민주의의 지리: 권력과 재현의 공간』, 이영민·박경환 옮김, 서울: 여이연, Sharp, J. P.(2009),

*Geographies of Postcolonialism: Spaces of Power and Representation*, Los Angeles: SAGE.

스피박, 가야트리(2008), 『다른 세상에서』, 태혜숙 옮김, 서울: 여이연, Spivak, G. C.(1987),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슬레먼, 스티븐(1992), “제국의 기념비들--탈식민적 글쓰기의 알레고리와 반언술행위”, 『외국문학』, 제31호, 55-67쪽.

씨옹오, 응구기 와(1999),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 이석호 옮김, 고양: 인간사랑, Thiong'o, N. W.(1986), *Decolonising the Mi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 London: J. Currey.

아체베, 치누아(1999), 『제3세계 문학과 식민주의 비평: 희망과 장애』, 이석호 옮김, 고양: 인간사랑, Achebe, C.(1990), *Hopes and Impediments: Selected Essays, 1965-1987*, New York: Anchor Books.

유제분 엮음(2001),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 서울: 현대미학사.

이소희(2002), “탈식민 페미니즘 비평과 페미니스트 입장이론의 교차 지점에 관한 연구—글로벌 시대 페미니스트 주체 형성의 관점에서”, 한국영어영문학회, 『영어영문학』, 제48권 3호, 691-715쪽.

장세룡, 『교수신문』 2011.4.4일자 학술동향면: 트랜스로컬 비판하던 유목민의 후예, ‘장소’로 귀환하다.

조지형 외(2010), 『지구사의 도전: 어떻게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파주: 서해문집.

천광성(2006), “전지구화와 탈제국: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역사적 장

- 백에 관하여”, 『창작과비평』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의 연대와 잡지의 역할」 자료집 발표문(2006.6.9).
- 태혜숙(2001),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이연.
- \_\_\_\_\_ (2004),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서울: 문화과 학사.
- 파농, 프란츠(1998),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이석호 옮김, 서울: 인간사랑, Fanon, F.(1957), *Peau Noire Masques Blancs*, Paris: Editions du Seuil.
- Appiah, K. A.(1995), “The Postcolonial and the Postmodern”, in *Post-colonial Studies Reader*, ed. B. Ashcroft, G. Griffiths, and H. Tiffin London: Routledge, pp. 119-124.
- Ashcroft, B, G. Griffiths, and H. Tiffin(ed)(1995), *Post-colonial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 \_\_\_\_\_ (1998), *Key Concepts in Post-colonial Studies*, London: Routledge.
- Bhabha, H. K.(1986), “The Other Question: Difference, Discrimination and the Discourse of Colonialism”, in *Literature, Politics, and Theory: Papers from the Essex Conference, 1976-84*, ed. F. Barker, Essex conference on the sociology of literature, London: Methuen, pp. 148-172.
- \_\_\_\_\_ (1990), *Nation and Narration*, London: Routledge.
- \_\_\_\_\_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 Dirlik, A.(2001), *Global Modernity: Modernity in the Age of Global Capitalism*, Boulder: Paradigm Publishers.
- JanMohamed, A.(1985),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 The Function of Racial Difference in Colonialist Literature”, *Critical Inquiry*, 12, pp. 59-87.
- Mishra, V., and B. Hodge(1991), “What Is Post(-)Colonialism?”, *Textual Practice*, 5(3), pp. 399-414.
- Mitchell, W. J. T.(1995), “Postcolonial Culture, Postimperial Criticism”, in *Post-colonial Studies Reader*, ed. B. Ashcroft, G. Griffiths, and H. Tiffin, London: Routledge, pp. 475-479.
- Parry, B.(1987), “Problems in Current Theories of Colonial Discourse”, *Oxford Literary Review*, 9(1-2), pp. 27-58.
- Petersen, K. H.(1995), “First Things First: Problems of a Feminist Approach to African Literature”, in *Post-colonial Studies Reader*, ed. B. Ashcroft, G. Griffiths, and H. Tiffin, London: Routledge, pp. 251-254.
- Suleri, S.(1996), “Woman Skin Deep: Feminism and the Postcolonial Condition”, in *Contemporary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ed. P. Mongia, London: Arnold, pp. 335-346.
- Young, R. J. C.(1990), *White Mythologies: Writing, History and the West*, London: Routledge.

원고접수: 2011년 5월 12일

원고수정: 2011년 5월 26일

게재확정: 2011년 6월 10일

〈Abstract〉

## The Post-colonial Resistance Strategy and Feminism

Gaphee Ko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resistance strategy of post-colonialism and see its meaning and limitation. It presents mimicry, counter-discourse, translation and refusing imperial language as the examples of post-colonial resistance strategies. Homi Bhabha suggests that ‘mimicry’, ‘translation’, the third-space, hybridity can be interpreted as a location of subject-other where the resistance is embedded. Stephen Slemon points out that ‘counter-discourse’ is one of the crucial resisting strategy of post-colonial period. ‘Talking back’ as ‘counter-discourse’ is a way of changing the direction of dominant discourse of imperialism/colonialism. Ngugi wa Thiong’o’s choice of refusing English as his language is another example of post-colonial resistance strategy.

This article also aims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colonialism and feminism. To do this it examines some positions that criticize above mentioned post-colonial strategies. The criticism lies in their culturally-oriented specificity and the lack of politico-economic concern. It extends its criticism to their non-critical position about global capitalism, neo-colonialism and even contemporary imperialism. It criticizes that post-colonial resistance

strategies are even accommodating with the present capitalism or neo-colonialism. It criticizes that post-colonialists neglect capitalism by concentrating on anti-Eurocentrism.

Feminism can be supported and expanded by the post-colonial strategies in its interest in Eurocentrism and imperialism. It can be supported by its interest in race. And feminism can provide the insight of gender and sexuality. Especially post-colonial feminists, such as Spivak and Mohanty, provide the conceptual frame of race-class-gender. However, the meaning of post-colonial resistance strategies requires examination because of the above criticism and the lack of gender/sexuality frame. To move further from the present post-colonial strateg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colonialism and feminism. And based on this, the reviewing of post-colonial feminism shall be followed. It is for finding a better direction of present feminism and feminist movement.

**KEY WORDS:** postcolonialism, cultural resistance strategy,  
counter-discourse, translation